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비만, 최근 10년간 약 30.8% 증가

- 질병청,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기반 성인 비만을 심층분석 결과 발표
-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비만율은 전남·제주가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아
- OECD 가입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비만은 암발생 위험요인, 예방의 열쇠는 식이조절과 생활습관 관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34.4%)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제주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36.8%), 세종이 가장 낮다(29.1%)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관리청이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산출된 비만율*이 활용되었다.

*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text{kg}(\text{체중})/\text{m}^2(\text{신장})$)가 25 이상인 분율로 정의 및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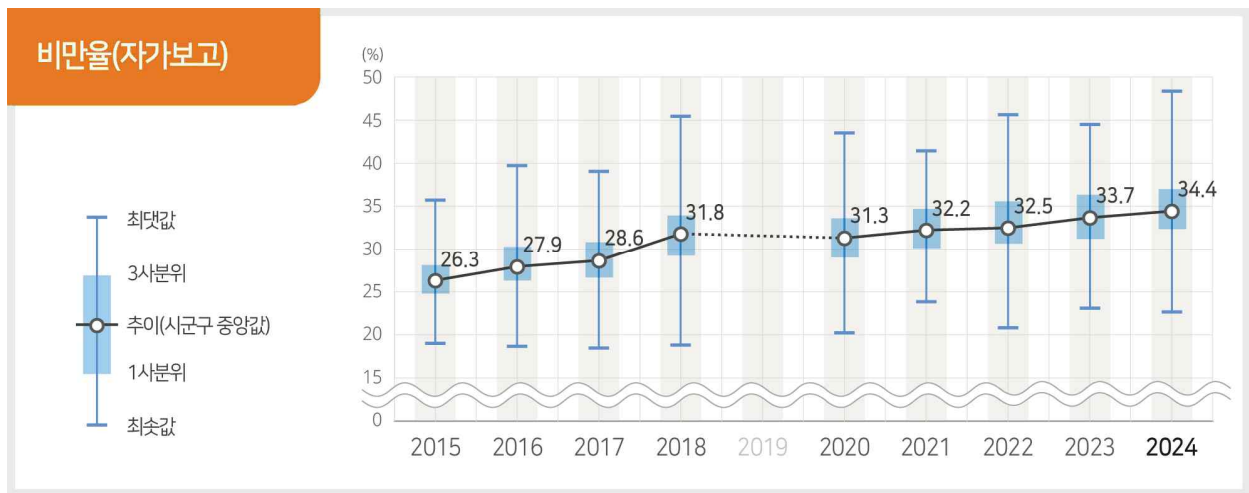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 ▶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 ▶ (조사기간) 매년, 2024.5.16.~7.31. (약 2.5개월)
- ▶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 ▶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1] 우리나라 비만 인구 지속 증가, 남녀·연령별 격차 뚜렷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성인 3명 중 1명(34.4%)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약 4명 중 1명(26.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가보고 비만율은 약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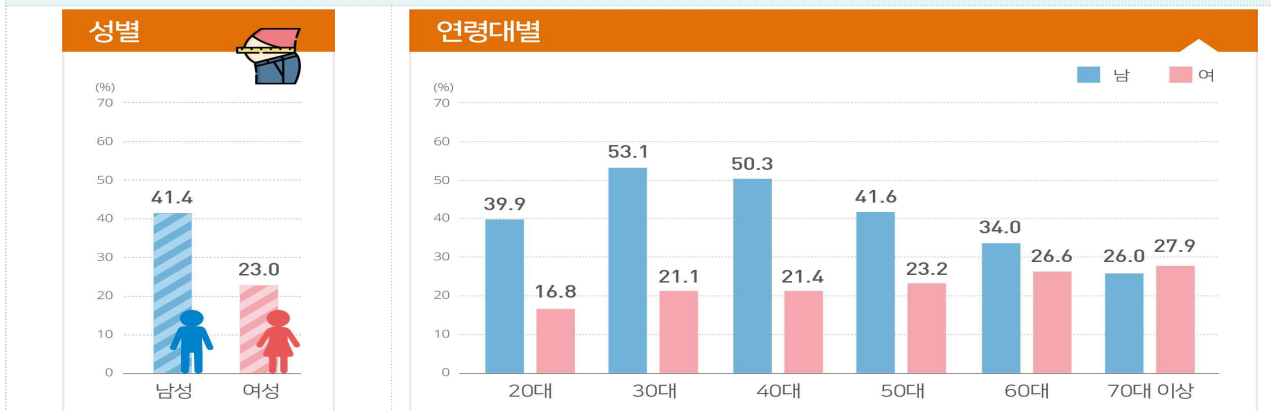
<비만율 추이(시·군·구 중앙값) 및 지역 간 건강격차(2015-2024년)>



- 1) '18년: 신체계측과 자가보고 동시 조사로 인해 자가보고 비만율의 일시적 상승 경향이 있음
- 2) '19년: 자가보고 비만율 조사 미실시로 해당 연도 통계값 없음

아울러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53.1%)와 40대(50.3%)가 비만율이 높아 약 2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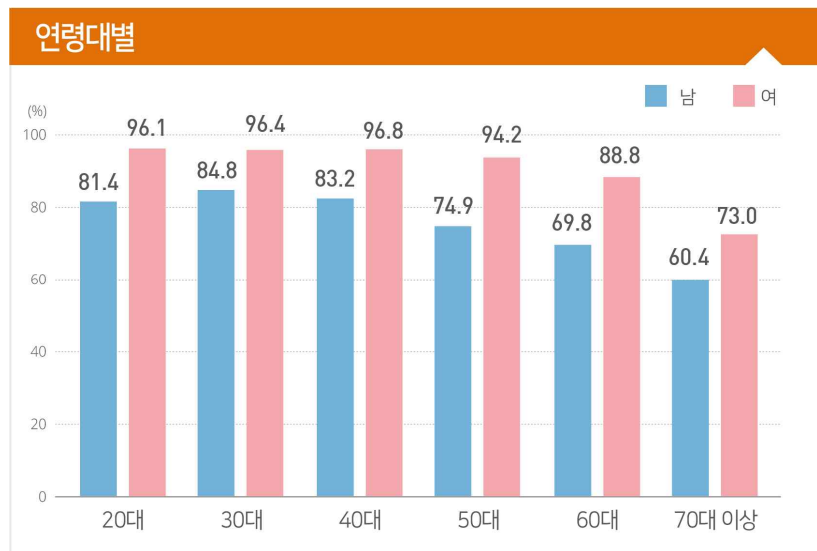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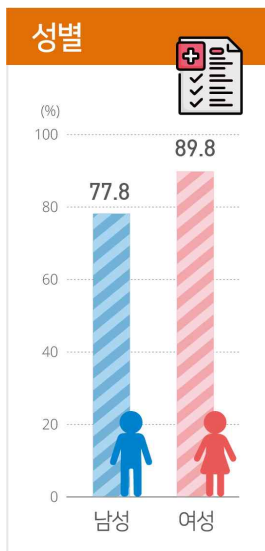
<성·연령대별 비만율(2024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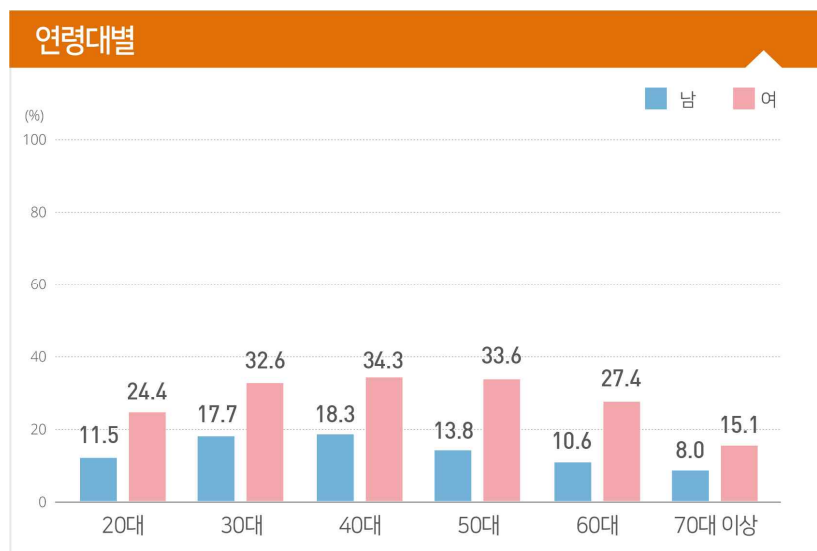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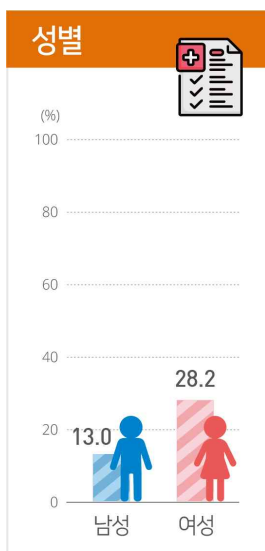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 약 2명중 1명(54.9%)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하다고 답변하였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77.8%, 여성 89.8%로 대부분은 스스로 비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0%, 여성 28.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비만인지율(2024년 기준, 단위: %) >

▶ 비만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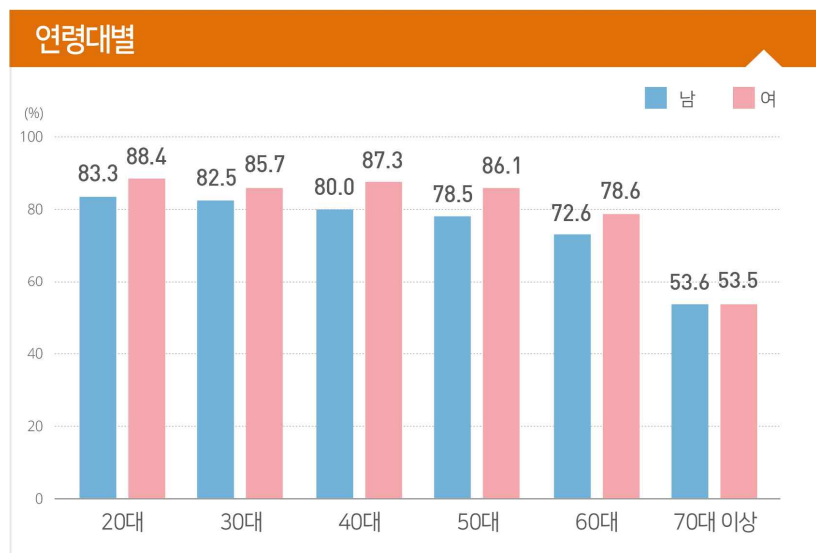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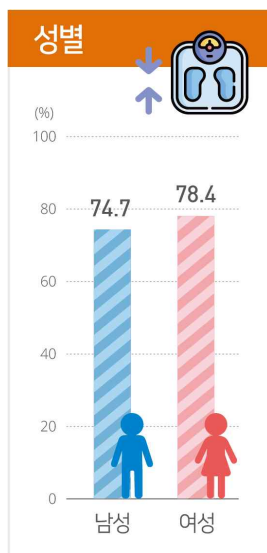
▶ 비만 아닌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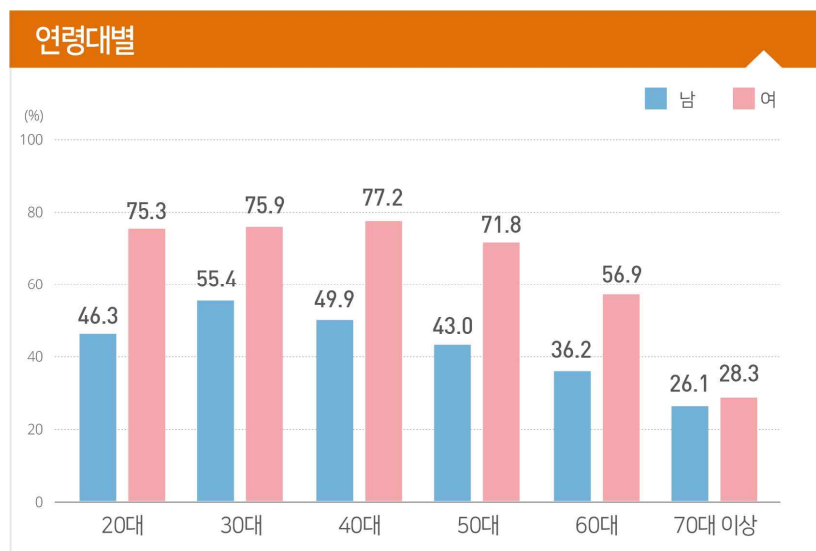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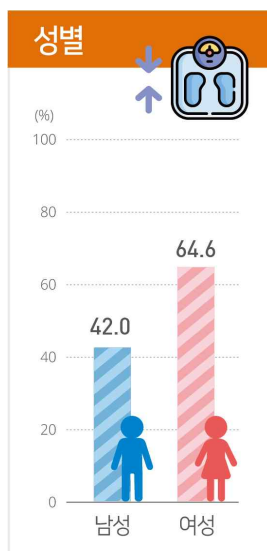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 약 5명 중 3명(65%)이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하였다. 체중조절 시도율을 분석한 결과, 비만인 사람은 남성 74.7%, 여성 78.4%로 대부분 체중조절을 시도하였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남성 42.0%, 여성 64.6%로 비만이 아닌 집단에서도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고령층으로 갈수록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체중조절 시도율(2024년 기준, 단위: %) >

▶ 비만 집단



▶ 비만 아닌 집단



[2]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최근 10년간 비만을 증가 추세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36.8%)과 제주(36.8%)였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으로 나타나 광역시·도별로도 비만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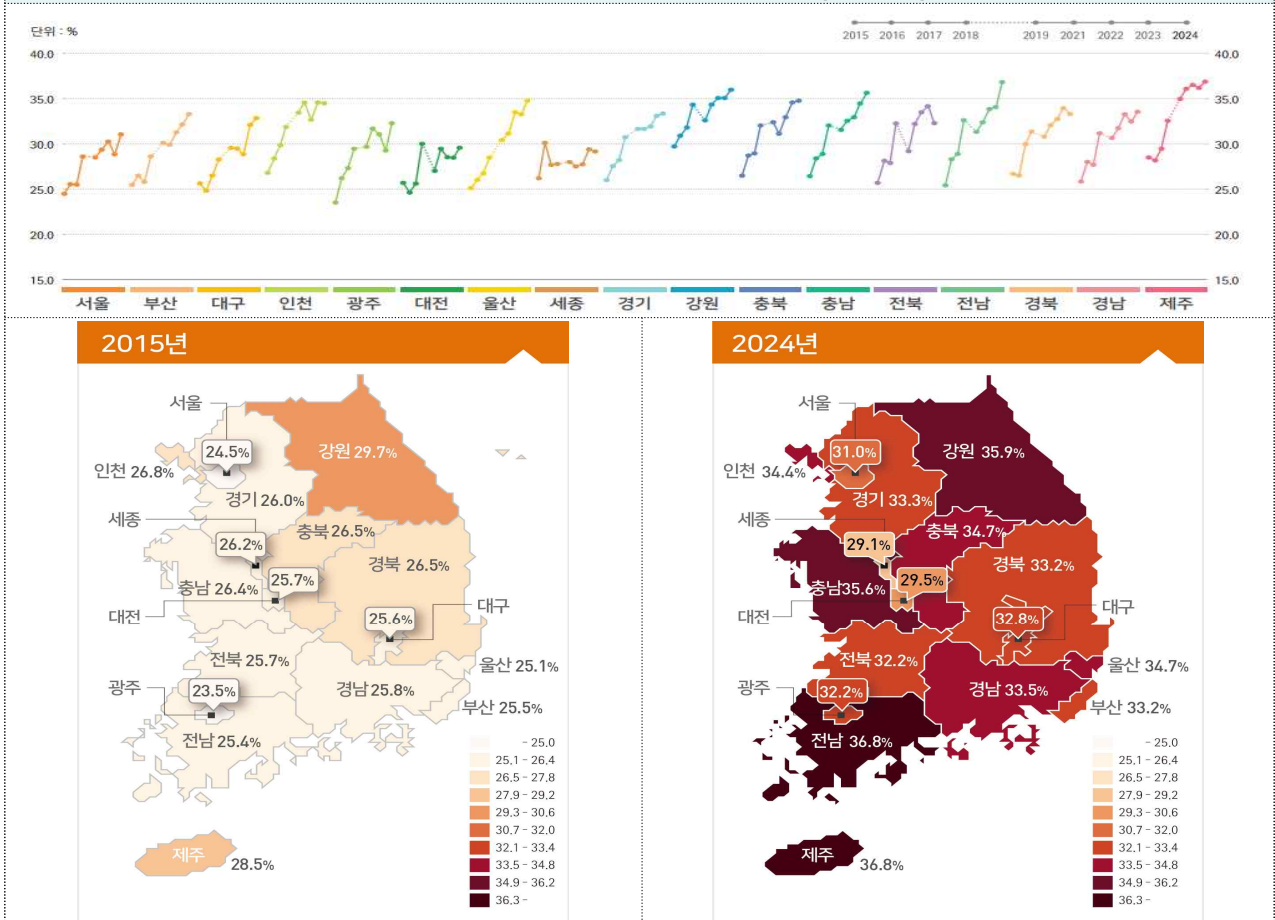
<2024 시도별 비만율>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0	33.2	32.8	34.4	32.2	29.5	34.7	29.1	33.3	35.9	34.7	35.6	32.2	36.8	33.2	33.5	36.8

또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비만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전남은 11.4%p 상승('15년 25.4%→'24년 36.8%)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울산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p 증가('15년 26.2%→'24년 29.1%)에 그쳐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대전과 강원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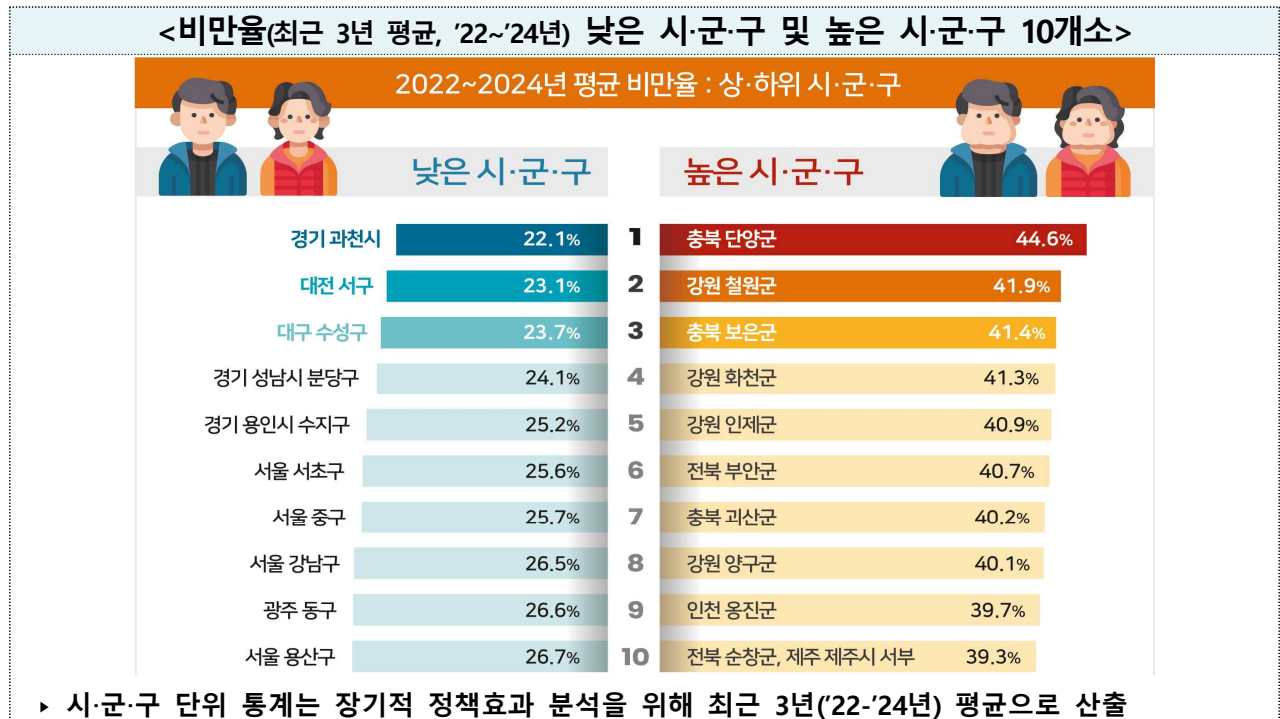
<2015-2024 시·도별 비만율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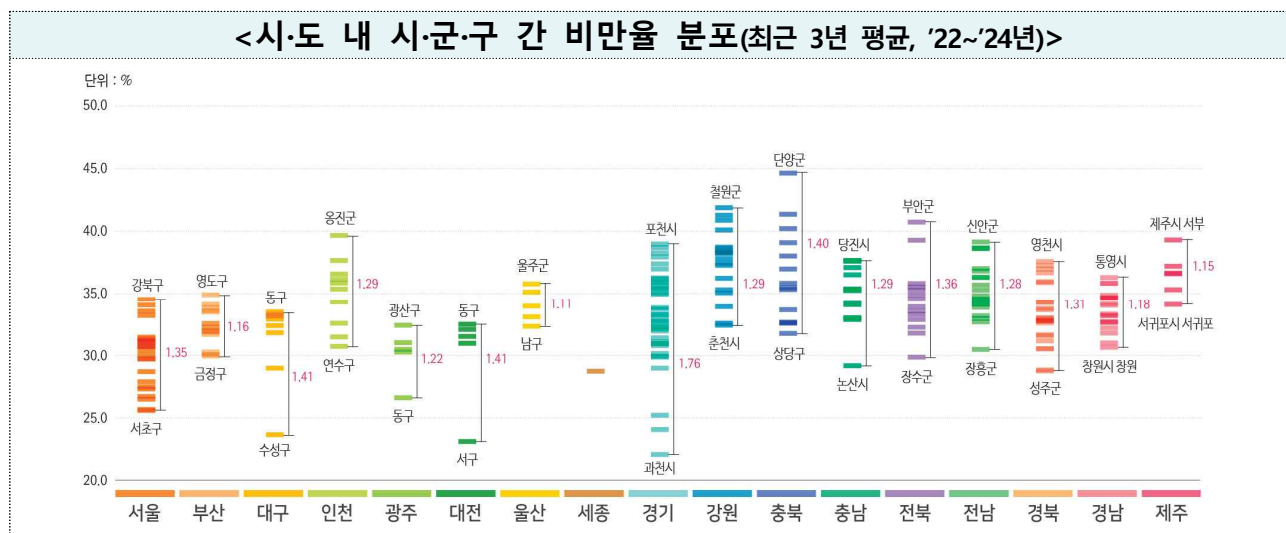
▶ 위 지도는 비만율 수준을 색상 농도로 표현한 것으로, 색상이 진할수록 비만율이 높고 색이 연할수록 비만율이 낮음을 나타냄

최근 시·군·구별 비만율(3개년 평균)은 충북 단양군(44.6%),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22.1%),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충북 단양군(44.6%)과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22.1%)의 비만율 격차비*는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별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최댓값/최소값)로, 수치가 클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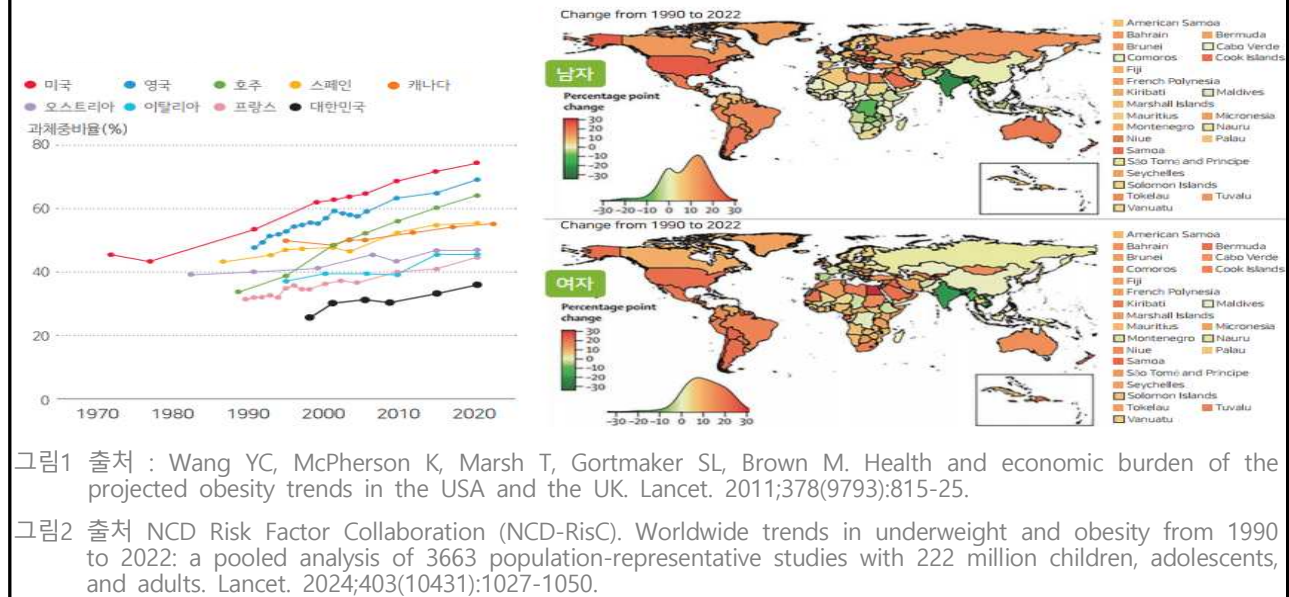
또한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1.76)였고, 가장 작은 곳은 울산(1.11)으로 나타났다.



[3] 비만, 전세계적으로 급증 중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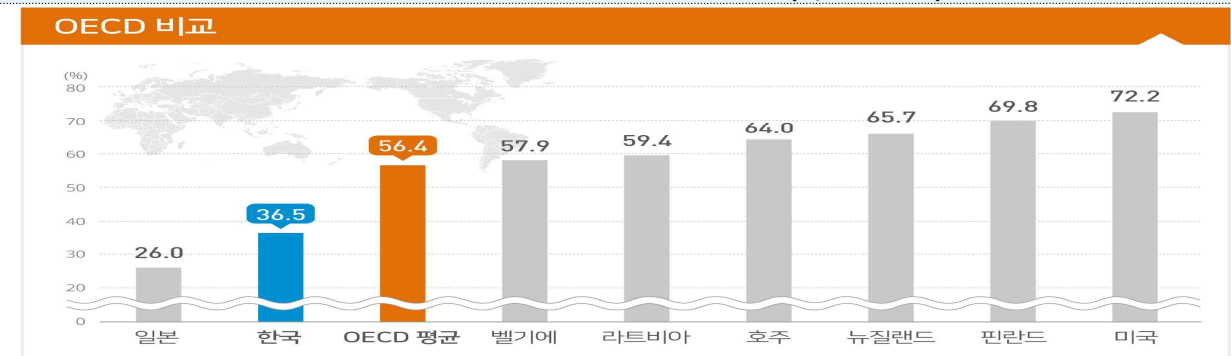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비만율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비만은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모두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체중(BMI≥25kg/m²) 유병률의 미래변화 추세 예측모형 및 국가별 성인의 연령표준화 저체중 및 비만의 변화율 ▶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36.5%)는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습관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OECD 국가별 과체중 및 비만 비율(% 15세이상)>



국가	일본	한국	OECD 평균	벨기에	라트비아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미국
%	26.0	36.5	56.4	57.9	59.4	64.0	65.7	69.8	72.2

▶(활용자료) OECD DB(<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0.13. 기준시점 자료추출

▶(기준시점) 2023년 통계 기준이며, 2023년 통계가 없는 국가(라트비아, 호주, 핀란드)는 2022년 수치 활용

[4] 비만은 암발생 위험요인, 예방의 열쇠는 식이조절 및 생활습관 관리¹⁾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암의 발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성질환이다. 특히,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대사·호르몬·면역 기능의 변화를 통해 암 발생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장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유방암 등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5~10%정도 체중을 줄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호르몬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우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만성 염증 반응이 줄어들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어 이러한 변화들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막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약물치료를 넘어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뛰어난 효과의 비만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만 환자가 단순히 비만치료제에만 의존하여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한 경우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비만치료제 투약을 중단하였을 때 체중이 빠르게 원상복귀되고, 체중감량 이전보다 대사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비만치료제들을 사용 하더라도 균형잡힌 저열량식사와 꾸준한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시켜야 한다.

즉, 효과적인 비만치료제만으로는 충분한 체중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한다.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조절 방법으로 근소실을 막기 위해 체중 1kg당 하루 1~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초저열량식(여성 800kcal/일, 남성 1,000kcal/일 미만의 열량섭취)는 영양결핍이 쉽게 초래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하루 세끼니를 먹되 매 끼니마다 미량원소와 비타민,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채소를 섭취하고, 힘을 내서 생활하고 운동할 수

1)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2025년 10월호 '지상강좌', '전문가에게 듣는다'에서 발췌하여 재가공하였음

있도록 매끼니 반공기 정도의 잡곡밥을 먹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끼니 한덩이의 단백질(계란, 생선, 닭고기 등), 약간의 지방을 먹도록 권한다.

운동은 중강도(숨이차고 땀이 나는 정도)이상의 운동을 주 150분 이상, 근력 운동을 주2회 이상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의 운동능력, 통증정도, 선호도에 맞추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운동은 기분을 환기하고 근감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5]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맞서야하는 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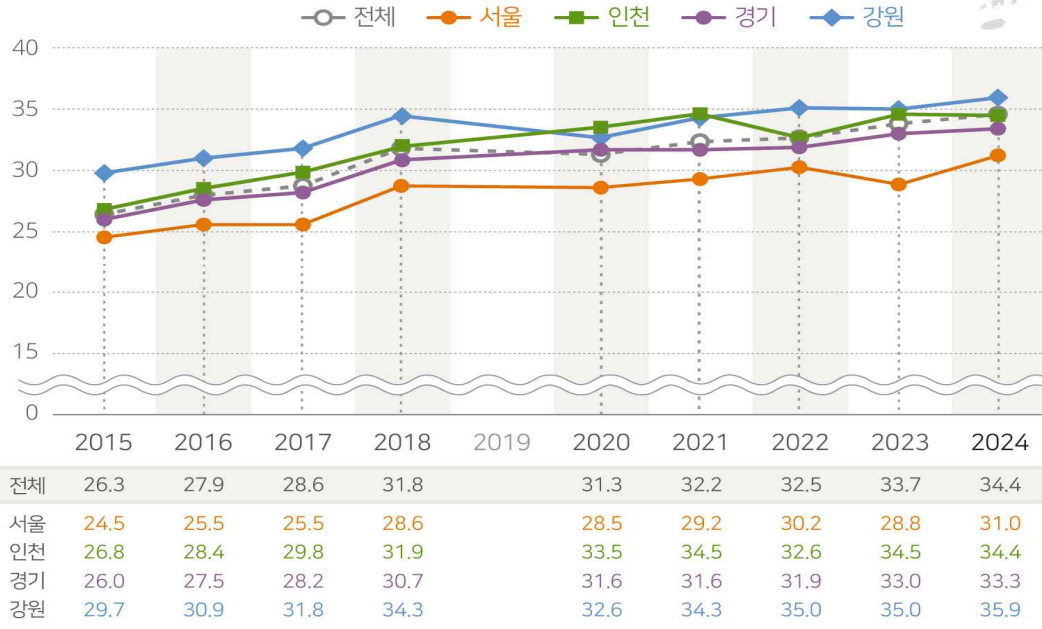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비만 치료제 사용이 활발해 지면서 체중 조절, 다이어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선행질환으로, 비만 관련 인식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말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보건소에서 근거기반 보건사업 정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FMTP) 등을 수행하고, 지역 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역별 비만을 현황
2. 비만 예방 카드 뉴스
3. 비만과 암, 쉽게 읽는 Q&A
4. 비만 치료제 보다 운동·식습관이 중요
5.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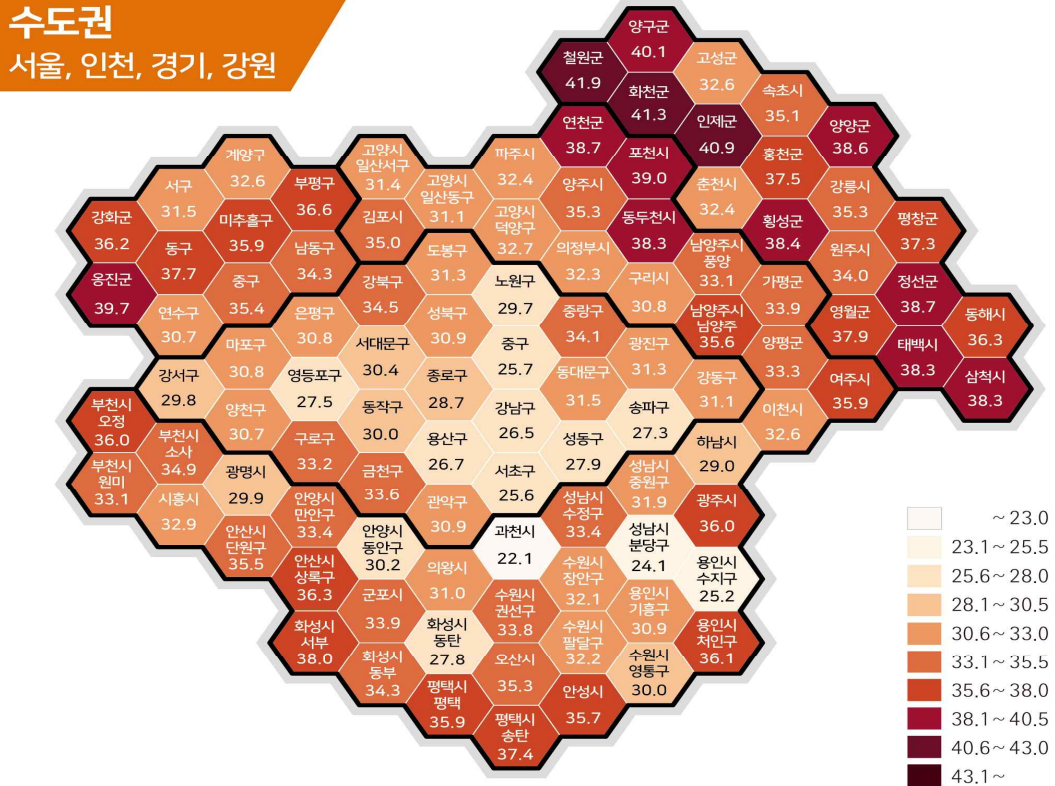
담당 부서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7380)
		담당자	보건사무관	김은경 (043-719-7387)
			선임연구원	고윤실 (043-719-7391)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비만을 추이(2015-2024년)>

수도권역 비만을(자가보고) 추이
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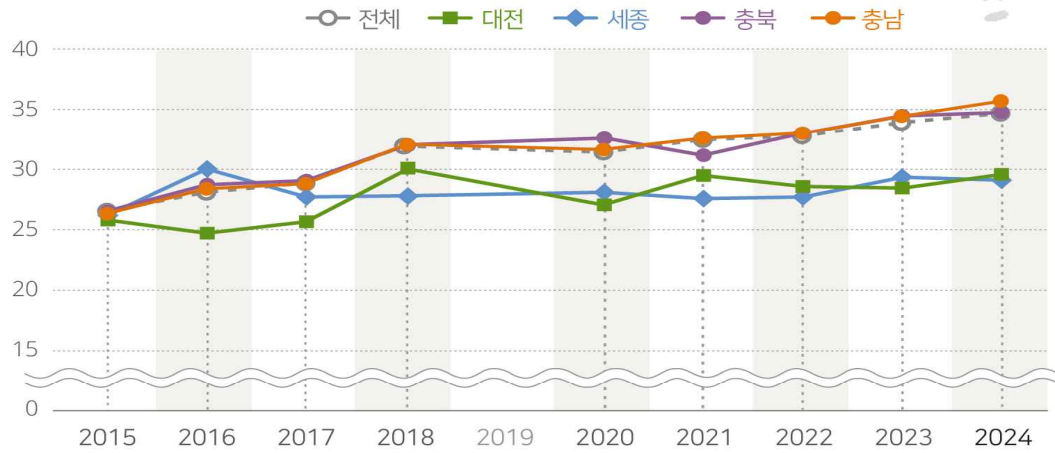


<수도권 시·군·구별 비만을 현황(2022~2024년 평균)>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비만율 추이(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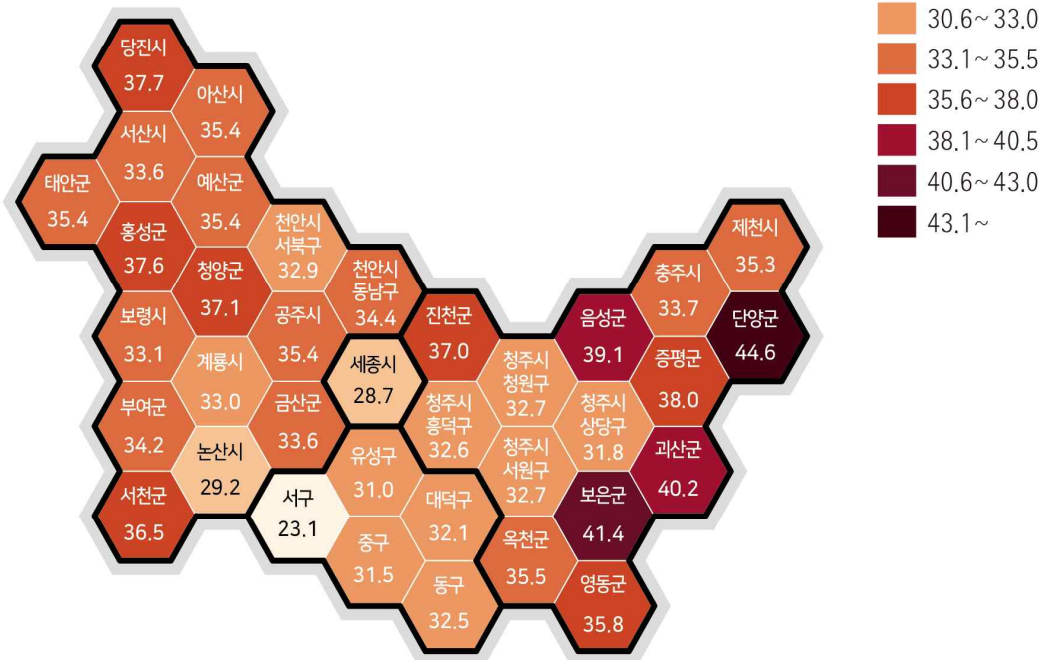
충청권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2015~2024년



<충청권 시·군·구별 비만율 현황(2022~202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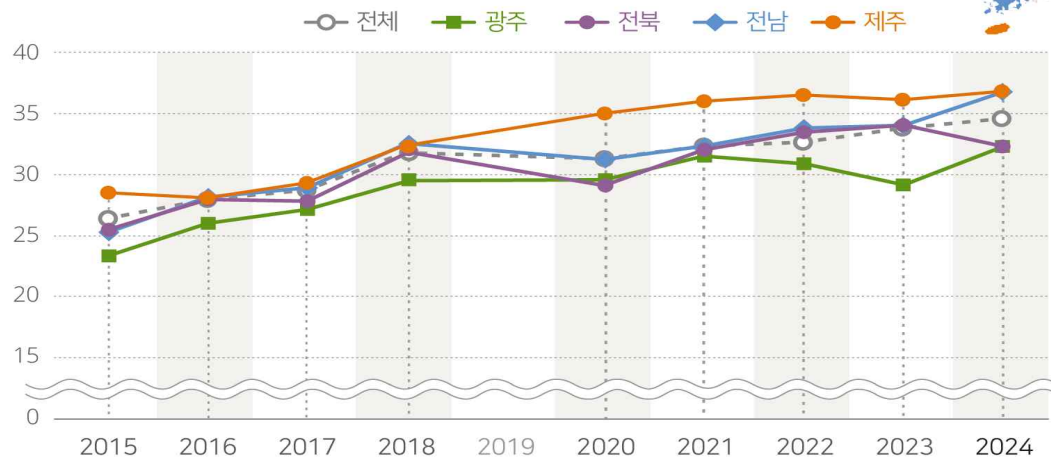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비만을 추이(2015-2024년)>

호남권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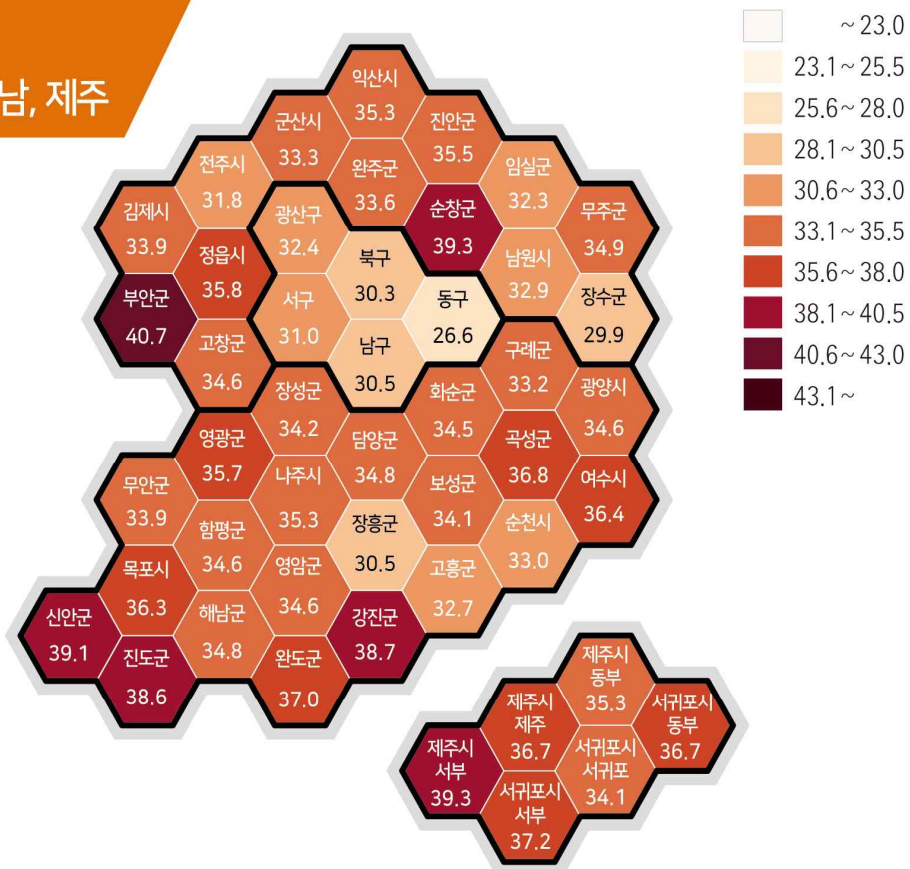


전체	226.3	27.9	28.6	31.8	31.3	32.2	32.5	33.7	34.4
광주	23.5	26.2	27.3	29.5	29.7	31.6	31.0	29.2	32.2
전북	25.7	28.1	27.9	32.2	29.2	32.1	33.4	34.1	32.2
전남	25.4	28.3	28.9	32.6	31.3	32.3	33.8	34.0	36.8
제주	28.5	28.2	29.5	32.6	35.0	36.0	36.5	36.1	36.8

<호남권 시·군·구별 비만율 현황(2022~202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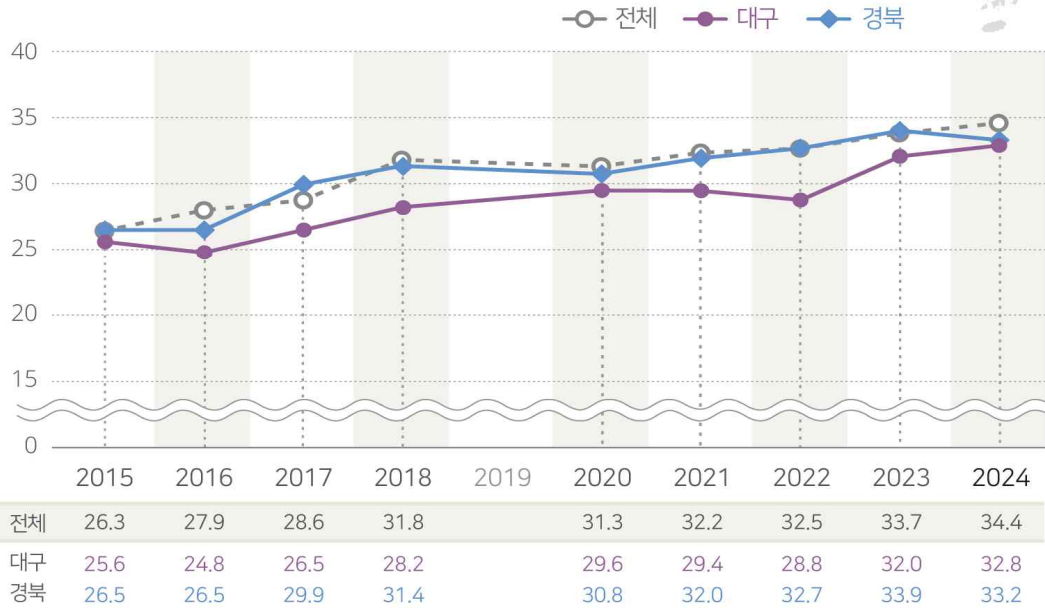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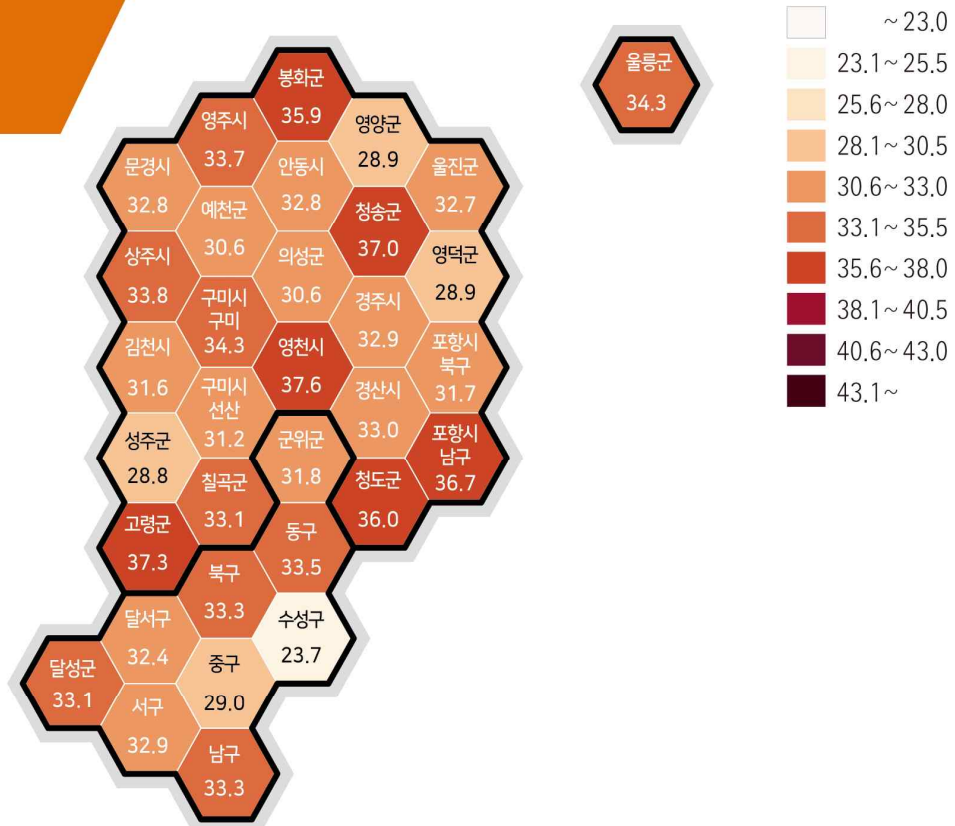
<경북권(대구, 경북) 비만율 추이(2015~2024년)>

경북권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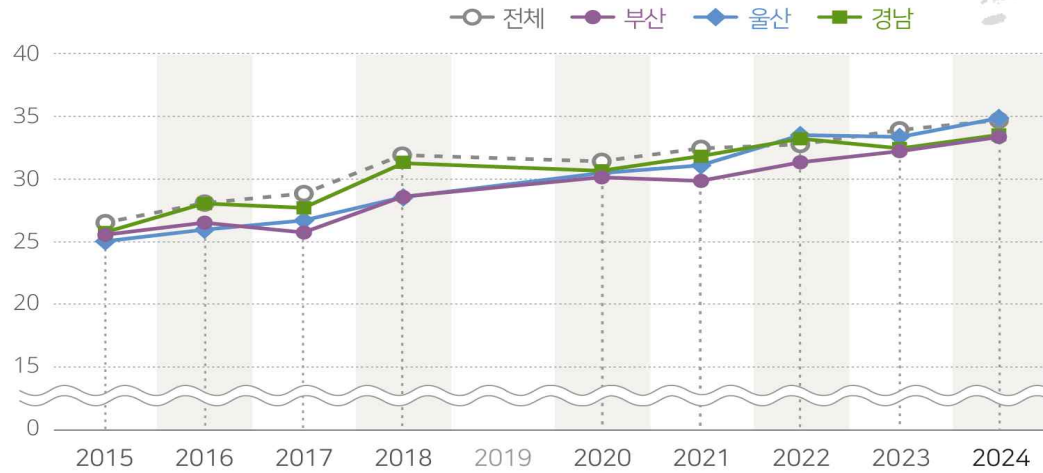
<경북권 시·군·구별 비만율 현황(2022~2024년 평균)>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비만율 추이(2015~2024년)>

경남권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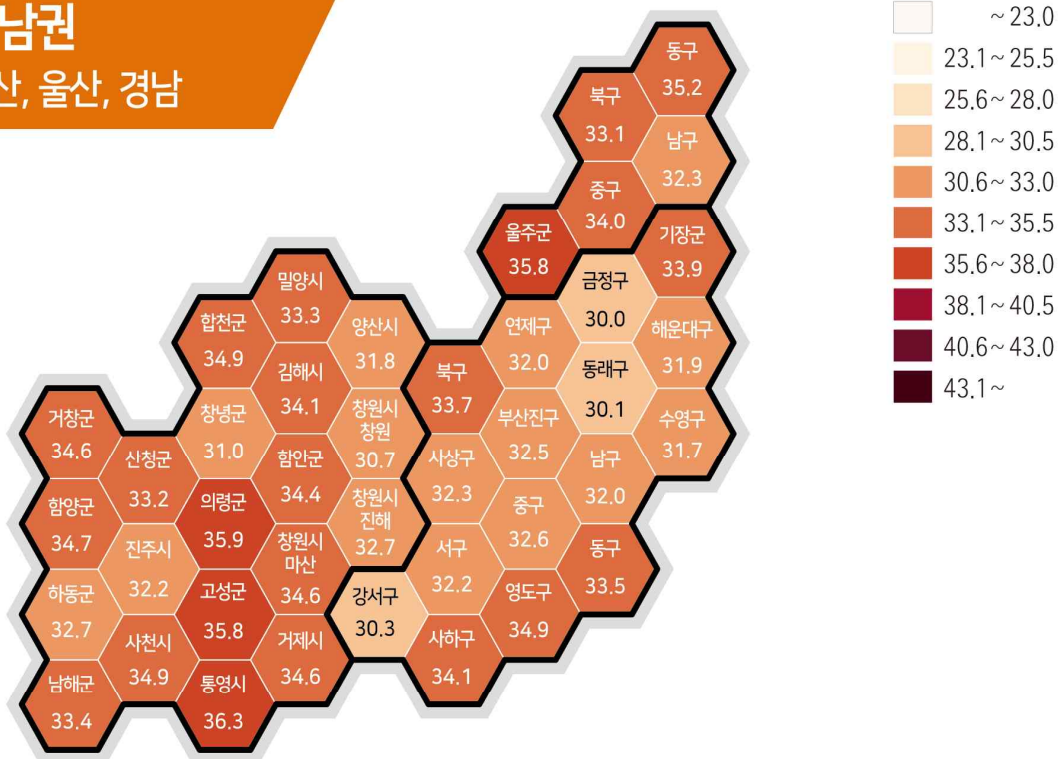


전체	26.3	27.9	28.6	31.8		31.3	32.2	32.5	33.7	34.4
부산	25.5	26.5	25.8	28.6		30.1	29.8	31.2	32.1	33.2
울산	25.1	26.0	26.7	28.5		30.4	31.0	33.4	33.2	34.7
경남	25.8	28.0	27.7	31.2		30.7	31.7	33.2	32.4	33.5

<경남권 시·군·구별 비만율 현황(2022~2024년 평균)>

경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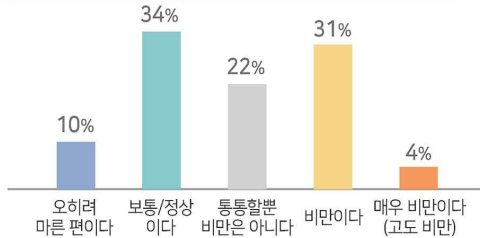
부산, 울산, 경남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

| 비만인의 잘못된 체형인식

혹시 현재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도비만 환자의 47%만이 본인이 고도비만이라 생각

반대로 저체중의 5%, 정상체중의 32%가 통통/비만으로 생각

BMI=체중(kg)/신장(m)²

	오히려 마른 편임	보통/정상 이다	통통할뿐 비만은 아님	비만이다	매우 비만 (고도비만)
저체중 BMI 18.5 미만	57%	38%	4%	1%	-
정상체중 BMI 18.5~22.9	11%	57%	23%	9%	-
과체중 BMI 23 이상	2%	24%	35%	38%	1%
비만 BMI 25 이상	-	4%	19%	73%	4%
고도비만 BMI 30 이상	-	2%	2%	49%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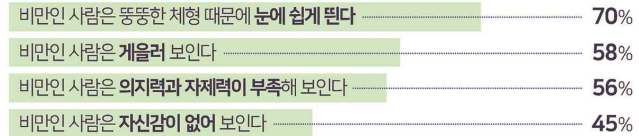
비만인의 잘못된 체형인식

출처: 대한비만학회, 비만인식현황조사 결과, 2023년

| 비만에 대한 사회적 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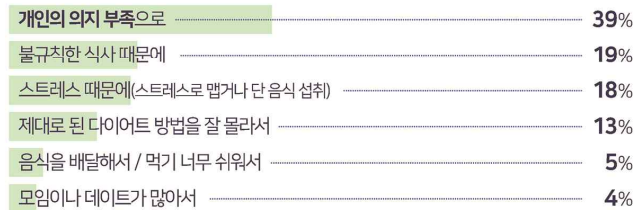
* 긍정 응답 비율(매우 그렇다, 그렇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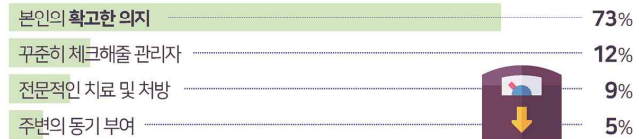


|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는 체중조절과 요요현상

요요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중 감량/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맞서야하는 비만 관

체중조절에 도움 되는 식사의령

- 기름진 음식, 당류, 염분은 적게!
 - 육류는 기름을 떼어내는 등 지방섭취를 알맞게 하세요.
 - 빵, 과자, 초콜릿 등의 간식은 피하고 물, 녹차, 블랙커피 등의 음료를 선택하세요.
-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아 금방 배를 부르게 하며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 음식을 천천히!
 -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식후 20분 정도 소요되므로 과식을 피하기 위하여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출처: 대한비만학회, 체중조절 식생활

일상 속 신체 활동량 늘리기

- 직장에서
 - 출·퇴근 때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기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기
 - 식당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 중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서 식사하기
 - 휴식(점심) 시간에 종로들과 주변을 거닐며 대화하기
- 가정에서
 - 장 보러 갈 때는 걸어서 이동하기
 -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 틈틈이 스트레칭 하기
 - 혼자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취미(운동) 만들기
 -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기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만예방을 위한 소소한 실천 카드뉴스, 2021년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비만 예방 캠페인

전국 98개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자체 합동 캠페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대회, 건강체험 부스 운영,
지역별 걷기 좋은 장소 추천, 음료 대신 물 마시기 등

논산시
건강걷기 대회

부천시 한마음 힐링
건강걷기 챌린지

옥천군 비만예방의달
10만보 걷기

보건소, 지자체와 함께 하는 비만예방캠페인

출처: 보건복지부, 비만예방,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해요! 카드뉴스

비만 예방 방법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비만을 예방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신청해 보세요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돌봄놀이터 홍보

출처: 보건복지부, 비만예방카드뉴스

* 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2025년 10월호에 수록된 '이달의 건강 이슈'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비만과 암: 쉽게 읽는 Q & A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윤영숙



국제 암 연구소(IARC)와 대규모 메타변수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대장암, 폐경후 여성의 유방암, 자궁내막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식도의 선암의 발생위험도를 높이며, 그 외 난소암, 전립선암, 담낭암과도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잉으로 인해 대사·호르몬·면역 조절에 변화를 일으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만성염증이 생겨 세포가 손상되고, 손상된 세포의 과도한 증식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슐린 관련 성장신호가 과활성화되면서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또한 폐경후 여성에서는 지방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성되어 유방암·자궁내막암 등 위험이 높아진다**.

체중을 5~10% 정도만 줄여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호르몬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우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만성 염증반응이 줄어들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균형이 회복된다. 이런 변화들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체중을 5~10%만 줄여도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유방암 발생 위험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대사·호르몬·면역 기능의 변화를 통해 암 발생과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만이 여러 암종의 위험을 높이며, 특히, 대장암·유방암·자궁내막암·간암 등에서 그 연관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체중관리, 건강한 생활습관, 필요시 약물·수술적 치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위험은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정책적 노력까지 병행된다면 비만과 암을 함께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2025년 10월호에 수록된 '지상강좌'를 재가공한 자료입니다.

* 좌측 QR 코드를 통하여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 좋은 비만치료제가 있어도 운동과 식이조절은 비만치료의 필수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정하



비만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뛰어난 비만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존하는 모든 비만치료제들은 일정 체중감소 이후 더 이상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정체구간이 있으며, △약물 중단시 요요가 발생하고, △모든 비만치료제는 비급여로 가격이 비싸 장시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속하기가 어렵다.

또한, 비만치료제에만 의존하여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한 경우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비만치료제를 중단했을 때 체중이 빠르게 복귀되고 체중 감량 이전보다 대사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후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저열량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며, 비만치료과정에서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시켜야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비만치료제가 다수 개발, 출시되고 있으나,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체중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생활습관조절은 여전히 비만치료의 핵심요소로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한다.



* 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2025년 10월호에 수록된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재가공한 자료입니다.

* 좌측 QR 코드를 통하여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추진배경

- (목적)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한 지역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 통계 생산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시 근거 제공

* 통계청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조사내용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 (조사시기) 매년 5.16~7.31
- (조사내용) 총 17개 영역 145개 문항
-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 영역 및 항목			
가구조사(가구대표 1인 참여)		7. 구강건강	14. 보건기관 이용
개 인 설 문 조 사	1. 흡연	8. 정신건강	15. 사회 물리적 환경
	2. 음주	9. 예방접종 및 검진	16. 개인위생
	3. 안전의식	10. 이환	17. 심폐소생술
	4. 신체활동	11. 의료이용	18. 여성건강
	5. 식생활	12. 사고 및 중독	19. 교육 및 경제활동
	6. 비만 및 체중조절	13.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

□ 자료공개

- (통계집)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http://chs.kdca.go.kr>, 매년)
지역사회 건강통계(<http://chs.kdca.go.kr>, 매년)
- (원시자료) 전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http://chs.kdca.go.kr>, 매년)

▶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개요

□ 추진 배경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한 근거기반 지역보건활동, 연구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건강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 기여

* 창간호 발간('16.10)이후 매월 발간, 총 108호 발간('25.10월 기준)

□ 주요 내용

- (구성) 지자체 기관장,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33개), 만성질환사업담당자 (보건소), 전문가들이 매월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연구결과, 사업기획, 전문가 강의 등으로 구성

작성기관	구 성
지자체장	■ 책임자의 한마디
전문가	■ 전문가에게 듣는다 ■ 이달의 건강이슈 ■ 지상강좌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활용 우수기관 ■ 근거기반 지역보건활동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 ■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 이야기
보건소 담당자	■ 지역보건인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 우수사례
증앙	■ 주요이슈 ■ 인물동정

- (배포) 매월 책자 인쇄본 약 1,500부*, 이메일 1,650명 배포 중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책임대학 등 기타 관련기관, 원고저자, 메일수신 독자

